

韓国語

“침대커튼도 안 뜯어갔어. 그대로야, 고리도 다른 것도. 모든 게 그대로, 나도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환영을 모두 지울 수 있어. 그래, 모두 지우고 말겠어. 자신 있어!”

이렇게 소리치는 내내 두 손은 옷을 입느라 부산을 떨었어. 뒤집어 입기도 하고 거꾸로 입기도 하고 찢어먹기도 하고 잘못 놓기도 하는 등 뒤죽박죽으로 만들며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야.

“뭐부터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스크루지는 이렇게 소리치며 동시에 울고 웃었어. 그러다가 스타킹으로 온몸을 칭칭 감은 모습은 영락없이 라오콘 같은데도 이렇게 소리치는 거야.

“나는 새털처럼 가볍고 천사처럼 행복해. 어린 아이처럼 즐겁고 술 취한 사내처럼 기분이 좋아. 그러니 여러분도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세요! 새해에는 온 세상 모두 복 많이 받아요. 안녕하세요, 거기! 안녕하세요, 여기!”